

국가데이터처, 호주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 한국·호주, 데이터 활용 경험 공유하며 통계협력 강화 -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12월 4일(목)부터 12월 5일(금)까지 대전에서 호주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2024년 12월 통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양자회의에는 데이비드 그루엔(Dr. David Gruen) 호주 통계청장, 마르셀 반 킨츠(Mr. Marcel van Kints) 통계서비스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조직 개편(한국), △통계등록부(한국), △개인·기업 종단데이터(호주), △경제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민간 데이터 활용(한국·호주), △가구조사 응답률 제고 전략(한국), △AI 활용 현황 및 향후 방향(한국)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데이비드 그루엔 호주 통계청장은 한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 이후 추진 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와 AI 기반 통계혁신 전략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회의가 양국의 협력과 상호 학습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통계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MOU 체결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양자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호주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통계혁신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2-481-2095)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영심 (042-481-2098)



▶ 호주 통계청 데이비드 그루엔 청장과 면담하고 있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 호주 통계청 대표단과 기념 촬영
- 왼쪽에서 세번째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